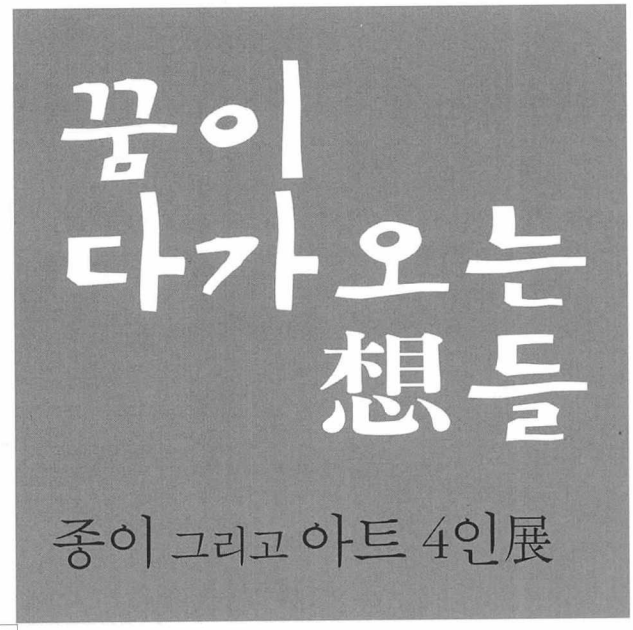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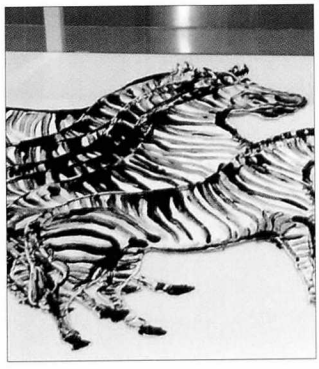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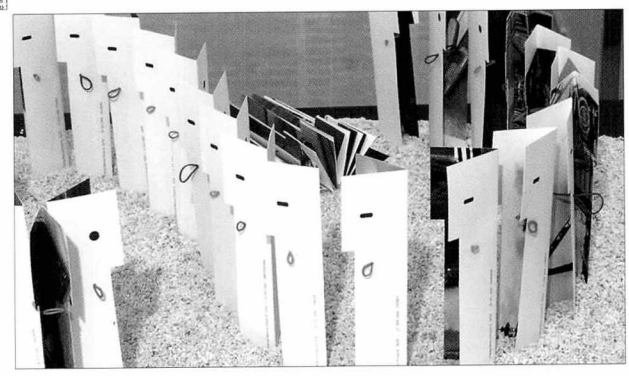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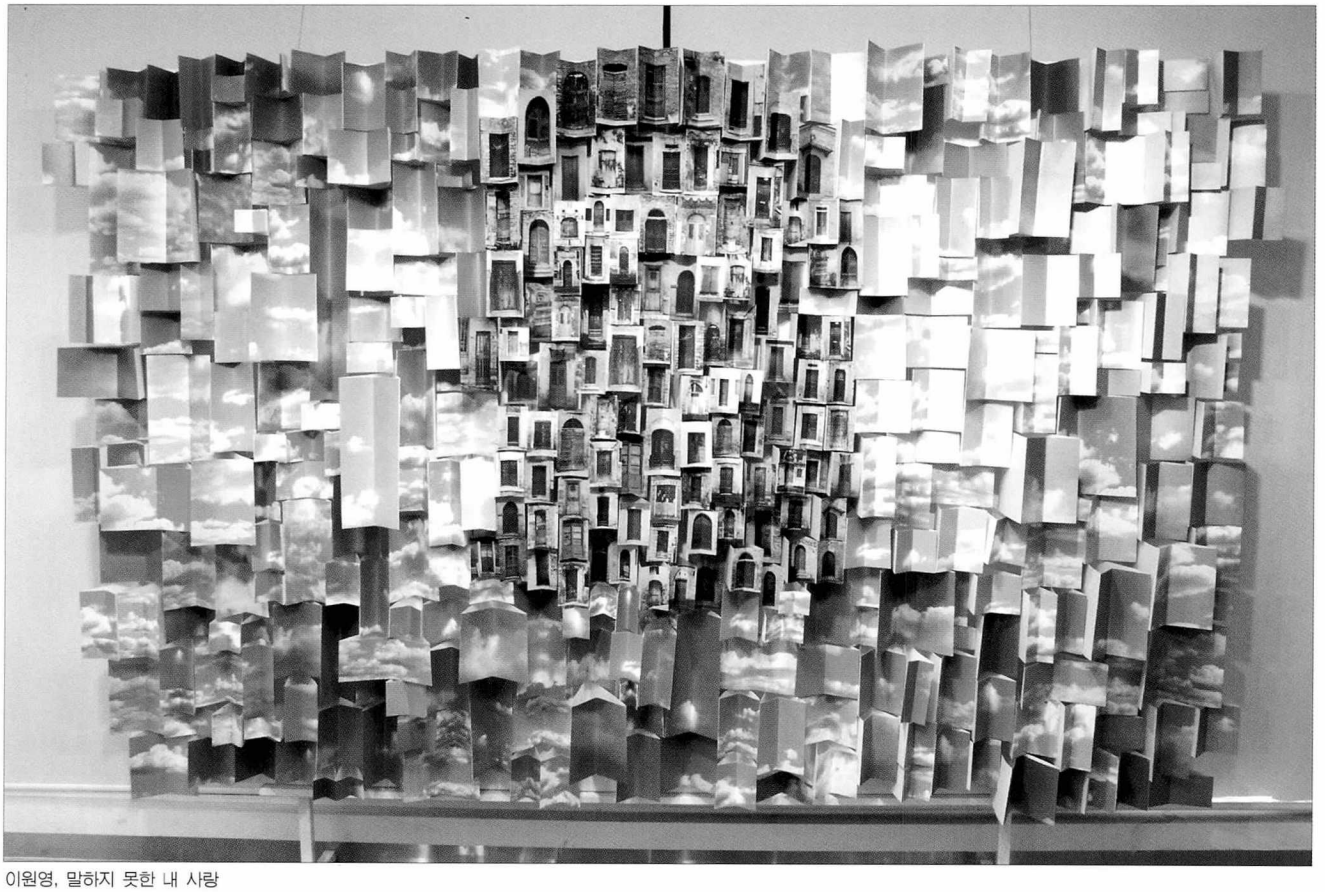






하늘은 눈부시도록 파랗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는 손길은 점점 잦아진다. 어느 덧 시간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의 길목에 들어서 있다. 움츠려드는 어깨에 감정이 메말라 가기 쉬운 요즈음, 한 번쯤은 전시회장을 찾아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바쁜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삶에 활력을 주고, 가슴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훌륭한 작품들을 무료로 전시하는 곳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서울 중곡동에 위치한 삼원 페이퍼갤러리(www.papergallery.co.kr)에서는 지난 10월7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종이를 주제로 한 무료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원영,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삼원 페이퍼갤러리는 지난 2004년 9월 1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삼원특수지 신사옥에 설립된 디자인, 인쇄, 예술문화를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관이다. 이 곳은 그래픽 디자인 갤러리로서 국내외에서 인쇄한 우수한 샘플들을 디자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픽인쇄물전시공간' 은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매뉴얼 리포트, 브로셔, 레터헤드, 패키지, 캘린더 등의 각종 그래픽 인쇄물 중 디자인과 창의성이 뛰어난 제작물을 엄선하여 소개한다. 큐레이터인 안정희씨는 "전시된 작품들은 삼원특수지가 거래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이 판촉물 형식으로 개발한 샘플과 유통인쇄물들" 이라며 "작품을 감상하는 디자이너와 미술가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 설명했다.

'고급특수지전시공간' 은 수백여종의 세계적인 종이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색지, 그래픽 · 디자인 용지, 인쇄용지, 미술용지 등 용도별 섹션으로 나누어진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종이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테마전시공간' 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테마를 바꿔가며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이다. 연중 계속되는 다채롭고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감상과 배움의 즐거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안정희씨는 "그 동안은 주로 디자인과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들을 소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페이퍼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삼원특수지(www.samwonpaper.com)는 1990년 '모든 종이에의 길잡이' 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되어 세계 각국에서 최고품질의 인쇄용 고급지류 및 산업용 특수지류만을 엄선해 국내시장에 공급해오고 있는 수입지류 전문업체다.

종이에 입체화된 꿈의 조각들

종이라는 매체의 고유한 성격에 매료되어 함께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는 작가 이원영, 김승연, 이서미, 김효 씨. 이들은 총 20여점의 작품을 통해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서 진행형인 지난날의 일상, 상상, 꿈 등의 조각들을 종이의 입체화를 통해 예술화시킴으로써 관람객들과의 이야기 나누기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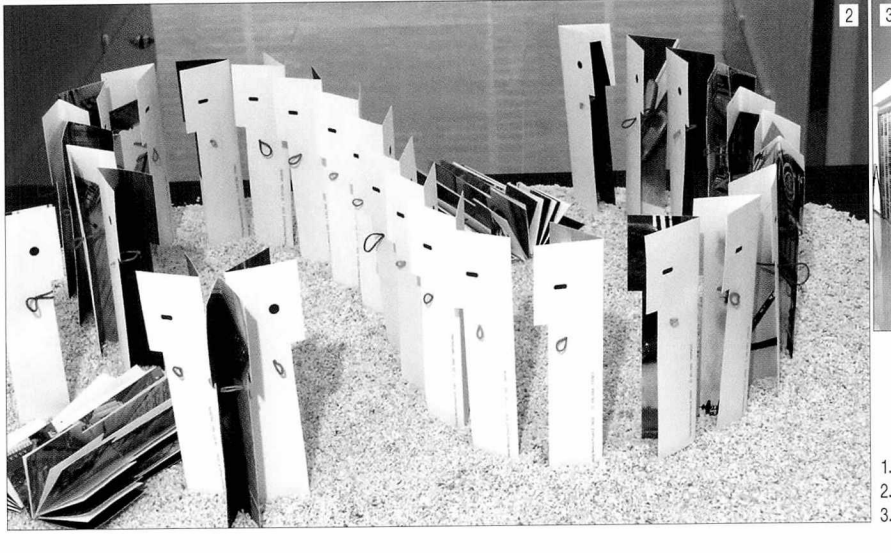
작가 이원영씨는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이란 작품에서 "누구에게나 한번쯤 찾아오기 마련인 첫 사랑은 아팠던 기억도 미소 지으며 회상하게 하는 묘약 같은 것" 이라며 바라만 봐도 마음 깊은 곳까지 청량함을 느끼게 하는 '하늘' 과 흑백

으로 처리된 '닫힌 문'을 소재로 첫사랑의, 그것도 고백 한 번 해보지 못한 외사랑의 애틋함을 표현한다.

특히, "작품감상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찍기를 통해 관람이 기록과정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사진이 기록으로서 오래 소유될 때 비로소 작품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김승연씨는 '기억에게 자유를 주다'라는 작품에서 사진은 왜 종이 위에 갇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일상의 탈피를 위해 떠난 삶의 활력소, 여행을 통해 얻은 기억(사진)들을 종이 위에 갇힌 형태가 아닌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 한다. 작가는 "내가 여행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듯이 사진에게도 조금의 자유를 선사하여 나름의 시각을 갖게 하고 싶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라고 작품 동기를 밝힌다.

이서미씨는 잔잔히 들여다보면 진리들이 녹아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떡볶이', '식사', '집', '찰칵' 등의 제목에서 보듯 대부분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작품화했다. 특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작품에서는 멀리 배경에서 달리는 기차의 회화적 이미지가 눈앞에 가깝게 입체적으로 표현되며 개들의 우화적 이미지와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과 해학으로 보는 즐거움을 준다. 종이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었던 'Pop-up 기법'이 작업 내내 작가를 즐겁게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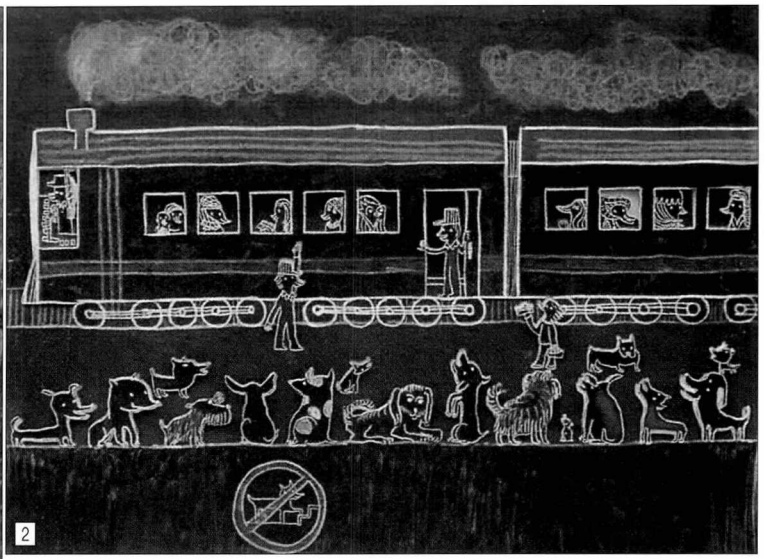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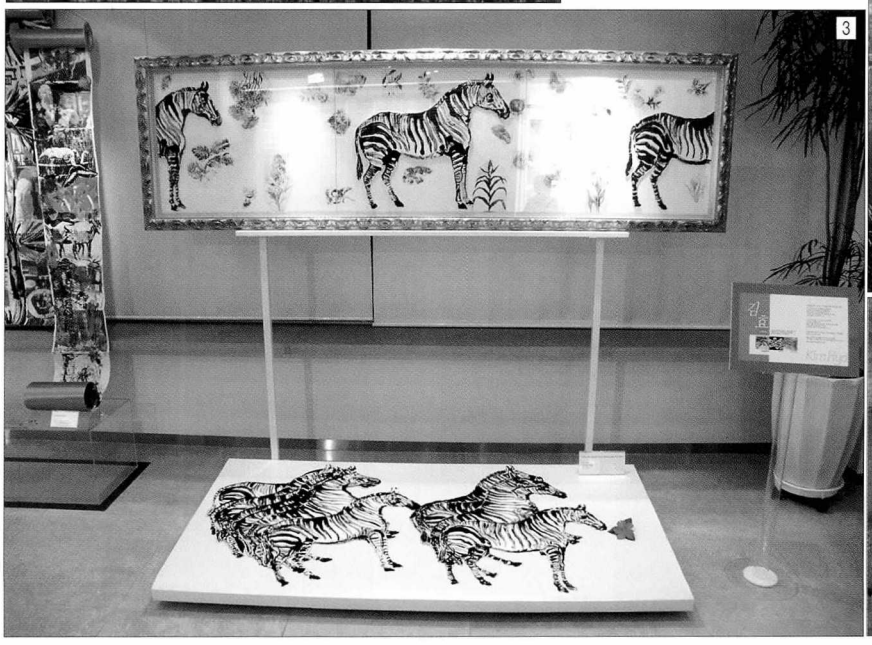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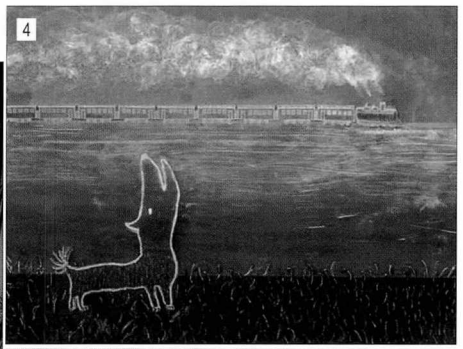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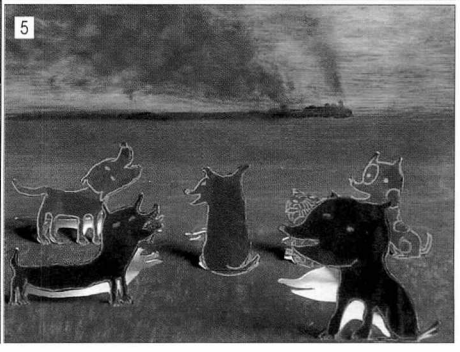
1. 갤러리 내부
2. 김승연 기억에게 자유를 주다
3. 고급특수지 전시공간

김효씨는 "나는 꿈을 꾸고 내 손은 나의 꿈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를 담은 일기형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즐기고, 또 미래를 꿈꾸기도 하며, 유쾌하고도 즐거운 상상력을 작품화 한다. 작가에게 북아트 작업은 누군가를 위한 작업이기 이전에 작가 자신을 위한 주술과도 같은 것이며 이러한 상상의 지속이 행복과 꿈이 현실화 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는 과정이기도 하나 작가의 일상, 행복과 기쁨, 상상의 세계를 작품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보는이들로 하여금 기억과 회상, 일상, 상상을 다시 경험케 한다. 우리를 추억 속에 가두어 놓기 보다는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우리의 미래, 잊혀져 가거나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꿈과 소망 등이 종이와 함께한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의 상(想)들이 시간이라는 선로를 여행하는 듯한 감상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는 장르들의 결합과 종이의 입체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세계에서 기존 예술장르의 진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아트의 매체로서 종이가 아트의 주제로, 표현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본 전시가 갖는 의미이다. 일부 작품은 기념품화하여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준다.

〈김치원기자〉



1. 이서미, 금붕어 2. 이서미, 정거장 3. 김효 Little did I dream that I should see you here! 4. 이서미, 기차 5. 이서미,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